

# 문제는 다시 ‘사회적경제’ 이다.

최준(함께일하는재단 LH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단장)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 문제는 다시 ‘사회적경제’이다.

2011. 11. 2

최준 (함께일하는재단 LH마을형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장)

#### 1. 사회적경제를 찾는 이유를 분명히하자

- 노대명, 신명호의 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음.
  - 지금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떤 실천적 방식으로 세상과 사업을 대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더 필요한 때는 아닌가?
  - 특히 한국사회는 사회적경제의 기초가 되는 상호부조 및 협동적 경제의 허약. 국가의 제도적 물적 토대로 조성된 사회경제조직의 규모가 큼. 이는 개념과 범주로만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와 왜곡의 우려 있음.

-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주의자들이 할
  -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요?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쉴 때 즐겁게 쉬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교육 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 받고 보호 받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고, 자동차 보다 사람이 먼저 길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숨쉬며, 만인이 우리의 행복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는 세상,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은 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서 모두 구매해서 (함께 사는 지역의 공동체성 등은 구입 못하겠지요.) 특히 우리사회는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중장기 사회정책과 비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조세 정책 및 분배정책,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적

극적노동시장 정책을 포함 한 노동정책이 부재해 보이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이 연대회의가 만들어가려는 사회적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그 모습이 현재 다양한 사회적일자리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지역화폐활동의 모습으로, 농업의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지역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조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동으로, 지역과 대상을 고려한 문화활동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배제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으로, 교통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인 모습 등등의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도, 아니 이 위기를 우리 삶의 질을 달리 하는 기회로 삼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까, 아파트 값이 반등해도 변함 없을 만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인가를 지역에서 만인과 지역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만인의 사회권(건강권, 교통권, 환경권, 생태권, 교육권, 여성권, 노동권, 에너지권, 문화권,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의 철폐를 위한 권리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모든 권리) 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 결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 제도화의 그늘에서 다시 부족하고 빈 구석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대안을 신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길일테니까요.

-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생활과 삶을 이윤 축적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리의 준비와 시장은 우리 삶과 생활의 재료들로부터 시작하자.  
99 : 1의 사회에서 99를 생활로 조직하자.

2. 지역에서 우선 솔직하게 친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활동을 준비합시다. 멀리가기위한 불편한, 그러나 친절한 대화 모임.

사회적경제 주체 혹은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과잉과 결핍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이 바라는 개선 요구 내용은?	지역이 함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3. 다시 우리의 시각과 현실에서 사회적경제운동의 대장정 시작합니다.

- 볼로냐의 규모를 보는 것과 볼로냐의 전통을 보는 것 함께하기.